

## 계량경제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onometric Theory and Application, SETA)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한국계량경제학회와의 공동 주관으로 “2008년도 응용 및 이론 계량경제학 국제 학술대회”(The 20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onometric Theory and Application, 이하 SETA2008)를 본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08년도 5월 28일~30일, 3일간 개최하였다. 2008년도 학술대회는 4번째 SETA로 경제학부 황윤재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한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경제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학문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계량경제학 분야의 국제적인 Top 저널인 Journal of Econometrics 특집호에 출간하기로 하여 참여논문의 질을 높이고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SETA2008은 3일간 32개의 분과회의(Parallel session)로 진행되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조엘 호르비츠(Joel Horowitz, Northwestern University), MIT의 휘트니 뉴이(Whitney Newey, MIT), 영국 런던정경 대학의 피터 로빈슨(Peter Robins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등 계량경제학 분야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저명한 학자들이 이번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자(Keynote Speaker)로 참석하였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한홍(Han Hong, Stanford University), 일본 도쿄 대학의 히데히코 이치무라(Hidehiko Ichimura, University of Tokyo), 미국 예일대학의 유이치 키타무라(Yuichi Kitamura, Yale University), 영국 런던정경 대학의 올리버 린튼(Oliver Lint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등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대하여 수준높은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면에서 계속됩니다.)



## 공공경제이론학회 국제 학술대회 개최

(PET 08 in Seoul)

공공경제이론학회(Association for Public Economic Theory, 이하 APET)는 9번째 학술대회를 6월 27일~29일,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가 한양대학교의 나성린 교수와 함께 이번 학회를 주관하였다. APET는 전 세계 재정학 및 공공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최신 흐름에 대해서 상호간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APET의 학술대회는 관련분야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공경제분야 최대의 학회이며 경제학 분야 전체로 보아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세계적 국제학술 대회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학회에는 100여개국 180여 명의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학회에는 199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멀리스(James Mirrlees,

Cambridge University) 교수가 참석하여 저축과 상속세에 대한 최적 과세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연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멀리스 교수는 수리경제학을 전공한 조세이론의 권위자로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세 체계를 연구한 ‘최적 조세이론’으로 유명하다. 이에 앞서 프랑스의 파리1 대학 쿠옹 르 방(Cuong Le Van, University Paris 1) 교수가 ‘개발도상국의 성장 과정에 따른 경제적 요소’들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만의 국가개발연구원 격인 아카데미아 시니카 소장 평신군(Shin-Kun Peng, Director, Academia Sinica) 교수와 일본 도쿄 대학의 토시히로 이호리(Toshihiro Ihori, University of Tokyo) 교수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며 학계를 이끄는 저명한 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특히 게임이론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 경제학부 출신의 콜롬비아 대학 최연구(Yeon-Koo Che, Columbia University) 교수가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사진 : Hanyang Weekly



열기가 느껴지는 SETA 2008

이번 SETA2008에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15개국 이상에서 60여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SETA2008 학술대회의 주제는 “계량경제모형에 대한 비모수 및 준모수적 추론법”(Nonparametric and Semiparametric Inferences on Econometric Models)으로 비모수 및 준모수적 추론법에 대한 수준 높은 계량경제이론 및 응용 계량경제학 논문 가운데 최

근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들로서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논문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계량경제학의 연구 영역은 계량경제모형(econometric models)의 설정, 관측 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모형의 통계적 추론(statistical inference), 그리고 통계적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경제변수에 대한 예측(forecast) 및 정책 분석(policy analysis)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계량경제모형에 대한 비모수 및 준모수적 추론법은 연구자의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연구과정에 있어서 배제하고 검정하고자 하는 경제이론이 현실자료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모수적 기법보다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강인한(robust) 방법으로 지난 10년간 계량경제학 분야의 주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계량경제학분야에 활동하는 세계적인 학자들 중 다수가 아시아적 인종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혹은 유럽에서만 수준 높은 학술대회가 개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SETA 학술대회는 대만의 국가개발연구원 격인 ‘아카데미아 시니카’(Academia Sinica)의 소장이었던 충밍 쿠안(Chung-Ming Kuan) 교수와 미국 코넬대학의 용미오 홍(Yongmiao Hong, Cornell University) 교수의 주도로 2005년 제 1회 학술회의를 아카데미아 시니카(Academia Sinica)에서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SETA 학술대회의 취지는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아시아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도 하에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계량경제학 연구를 고취시키고 이들과 세계 학계와의 학술적 교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주최국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나 참가 및 발표자는 인종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모두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지향하고 있다.

과거 학술대회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클라이브 그랜저(Clive Granger, UC San Diego), 미국 예일 대학의 피터 필립스(Peter Phillips, Yale University), 프랑스 파리9 대학 크리스티앙 구리에로(Christian Gourieroux, University Paris IX), 미국 MIT 앤드류 로(Andrew Lo, MIT),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소렌 요한센(Soren Johansen, University of Copenhagen) 등 해외저명학자들이 기조연설자로 초대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다른 저명학자들도 참가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 결과 현재 SETA 학술대회는 계량경제학회의 FEMES(Far Easter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와 함께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극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 경제학부 학술행사

### ‘體制移行 경제의 금융개혁 경험’ 학술대회 개최 (Experience with Financial Sector Reform in Transitional Economies)



우리 경제연구소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산업은행·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체제이행경제의 금융개혁 경험’을 주제로 6월 17일~18일 양일간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유럽·중국 등 체제이행국들의 금융개혁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행기 경제에 있어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금융개혁을 위한 최적 로드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학술대회에는 각국의 금융개혁 및 체제이행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IMF 소속 경제학자들과 이행기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이행기경제 금융에 이론적/실무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는 세계은행 출신의 밀라드 룡 박사, IMF국장으로 전직 스페인 중앙은행장이었던 제이미 캐루아나, 중국의 화폐금융정책 실무에 대한 세계적인 대가인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조너던 앤더슨 박사 등이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행기 경제의 금융개혁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하계 단기경제학 강좌 개최 (Summer Economics School, SES)



을 더하였다. 이상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 각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들로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한 기본 핵심이론 및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었다. 이번 단기 경제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 경제학부의 학생들은 경험하기 쉽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경제학부는 여름방학(6월 중순~7월 중순) 기간 중에 ‘서울대 여름 경제 학교’라는 해외석학 초청 단기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단기강좌에는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의 신현송 교수(재무경제학 전공), 미국 시카고대(University of Chicago)의 사무엘 코르툼 교수(Samuel Kortum, 국제무역론 전공), 미국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의 최연구 교수(메커니즘 설계이론 전공)가 초청되어 무더운 여름에 학구열

## 교수수상

## 김병연 교수 - 학술진흥재단 지원대상 우수논문 선정



김병연 교수가 Mark Harrison과 공저로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006년 1월호에 'Lead Article'로 게재된 논문 "Corruption and Growth in a Partially Centralised Economy"(중앙집권화구조 국가의 부패와 성

장)이 학술진흥재단의 "우수논문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부분적 중앙집권화구조 국가의 부패와 성장관계를 연구하여 부패의 질이 경제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인 연구이다. 즉, 부패의 질이 생산지향적에서 소비지향적으로 바뀌면서 경제성과가 나빠지며, 그 부패의 질의 변화는 부분적 자유화 혹은 민주화에 의해 촉발될 수 있음을

소련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 2007학년도 우수강의상 및 우수연구 교수 선정

경제학부는 2007년도 우수강의교수로 황운재, 표학길, 류근관 교수, 우수연구교수(부교수 이하대상)로 이철희, 김병연, 김재영 교수를 선정하여 추천하였다.

## 교수동정

## 조성진 교수 신규임용



경제학부는 조성진(趙成珍) 교수를 2008년 3월 조교수로 임용하였다. 조 교수는 미국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sity)를 졸업, 2002년 예일대(Yal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산업조직론, 응용계량경제학, 미시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기업재무론 등이다.

사학위를 취득, 2002년 8월에 부교수로 부임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등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철희 교수는 1996년 미국 시카고대(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98년 조교수로 부임하여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승진하였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사, 인구경제학 등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94년부터 본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인준 교수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 당선

한국경제학회는 수석부회장선출 투표를 진행, 6월 9일 3차이사회 개표 후 김인준 교수를 2008년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은 차년도 학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한국경제학회는 1952년 창립된 한국경제학계의 대표조직으로 국문학술지 『경제학연구』를 연4회, 영문학술지 『The Korean Economic Review』를 연2회 발간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경제학 각 분야 간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제학공동학술대회' 개최하고 있다.

## 교수승진(김재영 교수, 이철희 교수)



김재영 교수와 이철희 교수가 2008년 4월 1일, 그간의 교육 및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했다. 김재영 교수는 1995년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박

## 이창용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거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용 교수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인선되었다. 이창용 교수는 1989년 미국 하버드대(Harvard

## BK21 사업단 소식

BK21사업단은 2008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했다.

▲ 해외석학 초청 BK21김태성 세미나 17회 ▲ 장기연수 지원 2명 ▲ 단기연수 지원(대학원생 19회, 신진연구인력 3회, 인술교수 5회 지원)

## BK21/김태성 세미나(2008년 상반기)

Giovanni Dosi (Saint Anna School of Advanced Study)  
Patterns of Innov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An Exploration of Different Policy Regimes

Kazuo Nishimura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Kyoto University)  
Optimal Growth with Intertemporal Dependent Preferences

Steve Ching (University of Hong Kong)  
A Characterization of the Uniform Rule with Several Goods and Agents

Franco Malerba (Bocconi University)  
History-friendly Model of An Industry Evolution

전현배(서강대학교)  
Increased Heterogeneity among Firms:

Underlying Economics and Implications

Joyce Jacobsen (Wesleyan University)  
Rules v. Discretion: A Human Capital-Based Approach to Explaining Custom

Bin Xu (CEIBS)  
Factor Productivity and Global Trade Patterns

Noel Gaston (Bond University, Australia, Visiting Professor of TEMEP)  
The Inverse Domino Effect: Are Economic Reforms Contagious?

한승진 (McMaster University)  
Strongly Robust Equilibrium in Common Agency

이지홍 (연세대학교)  
Efficient Repeated Implementation (joint with Hamid Sabourian)

Chris Sims (Princeton University)  
Bayesian Perspectives in Econometrics

이동훈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Option Value of Human Capital and the Narrowing Gender Gap in Labor Markets

Elias Sanidas (University of Wollongong)  
Measurement of Technology, Trade, And Economic Growth: Some Examples

강준구 (Michigan State University)  
Do Foreign Investors Exhibit a Corporate Governance Disadvantage? An Information Asymmetry Perspective

정 혁 (Vanderbilt University)  
The Price of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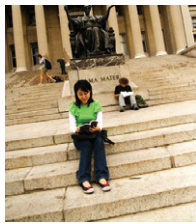
Alan Wing-Keung Wong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New Theories on Stochastic Dominance and Mean-Variance criteria with Applications in Economics and Finance

Samuel Kortum (University of Chicago)  
Global Rebalancing with Gravity: Measuring the Burden of Adjustment

# BK장기연수 체험기

최미강(BK21 참여 대학원생, 경제학부 박사과정)

“1년 간의 뉴욕 생활은 어땠어요?”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많이 받는 질문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화려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뉴욕에 살아본 생활인 혹은 문화인으로서의 경험일 것이다. 지저분해도 예술적 열기가 넘치는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내로라 하는 화가들의 숨막히게 인상적인 그림들, 한 손에 신문과 커피를 들고 바람처럼 움직이던 월스트리트 사람들, 시간이 멈췄으면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야경과 시원한 바람을 선사한 허드슨 강가, 미국의 유명 드라마 ‘Sex and the City’에서 Big과 Carrie가 실경이하다 빠진 센트럴 파크의 호수, 예쁜데 착하기까 지한 룸메이트 언니까지 그립고 또 유쾌한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와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꿈같이 즐거웠던 기억들 대신 좀 쓰라리지만 함께 나누고픈 교훈 하나를 짧게 적어보고자 한다.



질문의 날을 같고 대답을 좁히기에는 당시 나는 나의 위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딱 그만큼 게을러져있었다.

미국에서 전공관련 수업과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새삼스레 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궁금해

졌다. 그렇게 시작된 상념들이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당초 나의 부족한 점을 열심히 메우자 다짐하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막상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을 미국에 도착하고 한참이 지난 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자문자답이 주로 내가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이라 한없이 울적하였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 나와 공부를 둘러쥔 수많은 재미줄을 건어내고 점차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설령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전보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물론 멀리 떠나야만 객관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과 내 옷처럼 맞춰진 환경 속에서 냉정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신이 객관화되는 경험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없이 스스로의 가능성도, 한계도 인지하지 못한다. 가능성을 모르니 도전하지 않게 되고, 한계를 모르니 주변을 탓하게 된다. 나는 객관화 과정 후 가능성보다는 한계 리스트가 길게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살짝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계를 직시하였으니 비로소 내가 가진 가능성에 깊이 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체류 수기들은 으레 뜨겁다. 수기자들은 보통 자신에게 닥친 크고 작은 시련을 이겨내어 보다 큰 사람이 되었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나는 한없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했다. 냉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나의 한계를 목격하기. 이는 여전히 진행중인 작업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작업이기 때문에, 혹독한 객관화 과정을 거친 후 얼마나 달콤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에 대해 감히 뭐라 단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내가 경제학 공부를 더 즐길 수 있는 방법도,

## BK21사업단 단기연수 지원

오영중(2팀, 박사과정)  
일본/동경 2008.1.11~12 논문발표

오영중(2팀, 박사과정)  
호주/University of Wollongong 2008.2.12

김이경(2팀, 석박사통합)  
일본 2008.1.12~13 논문발표

손삼호(BK21사업단, 연수연구원)  
영국/런던 2008.1.19~20 논문발표

김윤지(2팀, 박사과정)  
호주/멜버른 2008.2.12~15 논문발표

이수련(3팀, 석사과정)  
미국/University of Rochester 2008.1.8~2.28

강래윤(2팀, 박사과정)  
인도/방갈로르 2008.4.1~6

강영삼(BK21사업단, 연수연구원)  
인도/방갈로르 2008.4.1~6 논문발표

김부용(2팀, 박사과정)  
영국/캠브리지 2008.4.1~2 논문발표

나원준(BK21사업단, 연수연구원)  
미국/Philadelphia 2008.5.8~10 논문발표

이주성(3팀, 석사과정)  
미국/Illinois 2008.7.13~17 논문발표

윤민호, 정문영(2팀, 박사과정)  
프랑스/스트라스부르 2008.3.31~4.4 해외연수

황순주(7팀, 석사과정)  
스웨덴/스톡홀름 2008.6.6~8 논문발표

문종면(6팀, 석사과정)  
미국/하와이 2008.6.29~7.3 논문발표

오동환(6팀, 석사과정)  
미국/하와이 2008.6.29~7.3 논문발표

박병진(6팀, 석사과정)  
미국/하와이 2008.6.29~7.3 논문발표

김미예(3팀, 박사과정)  
캐나다/몬트리올 2008.6.19~22 논문발표

박선영(3팀, 박사과정)  
캐나다/몬트리올 2008.6.19~22 논문발표

김진아(3팀, 석사과정)  
캐나다/몬트리올 2008.6.19~22 논문발표

명선하(3팀, 석사과정)  
캐나다/몬트리올 2008.6.19~22 논문발표

## BK21사업단 장기연수 지원사항

양정승(박사과정) 미국 오하이오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 2008.3~2009.3)  
Signaling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윤민호(박사과정) 이태리 보코니대(CESPRI, Bocconi University, 2008.4~2009.2)  
An evolutionary simulation model on NIS and firm performances: the case of frontier industries in Korea and Taiwan



조성진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학년도 1학기에 새로 부임한 신임교수 조성진입니다. 이번 봄학기에 대학원 미시경제특수연구

에서 저의 전공과목인 '실증적 산업조직론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 Empirical IO)'을 강의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의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저의 전공과목이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것 같기 때문에, Empirical IO를 소개함으로써 저의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의 Northwestern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Yale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Yale대학에 입학했을 당시는 Yale이 Empirical IO의 'structural form estimation'을 전공하시는 유명한 경제학자들로 인해 (John Rust, Ariel Pakes와 Steven Berry 등,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고 John Rust 교수님이나 Ariel Pakes교수님이 Yale을 떠나 있지만) 미국 경제학계의 Empirical IO분야를 주도하던 때였습니다. Empirical IO를 전공한 New Ph.D들은 경제학과뿐만 아니라 유명한 business school의 marketing전공으로도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제게는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를 접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저는 점점 더 Empirical IO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산업조직론은 미시경제학에서 기업의 전략적 행동, 시장구조와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즉, 산업조직론은 완전경쟁모델에 여러 실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friction), 예컨대 불완전정보, 거래비용, 가격조절비용, 정부간섭, 신규기업 진입장벽들을 고려하여 기업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기업 간 경쟁이 생성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적 학문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둔 Empirical IO의 방법론으로는 크게 'reduced form approach'와 'structural form approach'가 있습니다. 최근 경향에 의하면 Empirical IO의 주류는 후자, 즉 'structural form approa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duced form approach'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해 경제학적인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만을 토대로 경제학적 이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적용되는 계량경제학적 적용은 'structural form approach'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structural form approach'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변화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어떤 재화의 수요 함수와 공급함수를 동시에 추정하고 균형을 구

하는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은 경제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structural form approach'의 장점은 단점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mpirical IO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산업조직론은 미시경제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특히 이론적 산업조직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탄탄한 이론적 바탕이 없으면 기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려한 계량경제학적 계산방법으로 훌륭한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경제학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미진한 과오를 범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증적 산업조직론은 실증적 학문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균형을 도출하기 위해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탄탄한 계량경제학적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덧붙이자면 계량패키지 중 Gauss나 Matlab 등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제학적 현상이나 문제가 Empirical IO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박사과정에서 쓴 논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업의 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교체시기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기업의 이윤함수를 structural form으로 구성하고 극대화하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균형을 구하는데 있어서 상존하는 구조적 복잡성 때문에 그 해법으로 새로운 구성의 계량경제학적 알고리즘, 이른바 'Nonlinear Least Squared-Nested Fixed Point Algorithm'(NLS-NFXP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용한 것이 제 연구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연구주제로는 렌터카 회사의 최적투자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성과는 렌터카 회사의 각 지점의 차량 구성 비율, 즉 렌터카 구성의 포트폴리오가 주어진 상태에서 렌터카의 최적교환주기를 보여준 것이었고, 두 번째 성과는 차의 연식에 관계없이 렌탈가격이 균일한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연구는 현재 렌터카 회사들의 정책이 얼마의 이윤을 남기는지를 'structural form approach'를 통하여 설명하고 현재의 정책이 최적이지 않음을 또한 증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적의 렌터카 교체정책을 추천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최적차량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관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렌터카 회사 각 지점이 독립된 개체

로서 주어진 시기에 최적 수요예측을 통하여 각자의 이윤극대화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차량을 어떠한 종류로 구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structural dynamic auction'에 관한 연구입니다. 어떤 렌터카 회사들은 차량을 매각처분할 때 인터넷 전자옥션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sequential simultaneous dynamic auction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기존의 옥션 연구와는 다르게 dynamic programming 모델을 이용하여 structural dynamic 균형과 structural dynamic 입찰 전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는 신용카드에 대한 구조적 수요예측 모델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방대한 미시적 자료를 기술통계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고객들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구조적 수요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정책 변수를 변화시킬 때 어떠한 수요의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가능하게 합니다. 예컨대 최근 리볼빙카드 사용이 카드할부보다 더 큰 이윤을 회사에 남겨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떤 변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고객들이 카드할부에서 리볼빙 카드로 전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요 예측 모델은 마케팅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아울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카드 가맹점에 대한 최적의 수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Empirical IO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학문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고 전공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여러 가지 장점과 독특한 매력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제 학문 세계를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이해, 그리고 연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약력

### 1. 학력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2002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1997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95

### 2. 주요 논문

"The Flat Rental Puzzle"(with John Rust), forthcoming to Review of Economic Studies(2008)

"Is Econometrics Useful for Private Policy Making? A Case Study of Replacement Policy at an Auto Rental Company"(with John Rust), forthcoming to Journal of Econometrics(2008)

"An Empirical Model of Mainframe Computer Investment", forthcoming to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2007)



이홍재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책연구소에서 일한 다음 지금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경제학과 동문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운 좋게 모교에서 계량경제학을 강의하게 되어 목요일마다 관악캠퍼스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할 때는 정말 가슴이 찢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관악산 칼바람은 예전 그대로이고 여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빼고는 긴 세월동안 그리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유팩 차기도 여전히 더군요. 이번 학기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내게 새로운 보람이 생겼습니다. 아주대 강의도 재미 있지만 교육의 보람과 성과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예전 누군가의 시에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적 자원을 빼놓고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어렵겠지요? 그만큼 후배 여러분의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미력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학을 공부하고 마케팅 교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흔치 않으나 외국에는 더러 있는 일이고, 국내에도 여러분 선배 중에 경제학을 전공하고 서울 우수대학의 신문방송학과, 심지어 전자공학과 교수가 된 사례도 있으니 바야흐로 학문에도 융합(convergence)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한국의 현실은 타 전공으로의 진입장벽이 아직 높은 편이라 자칫하면 왕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제학회에 주 소속을 두고 학교강의로 이른바 “econo-marketing”이라 하여 경제학 이론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개발 과목을 개설하고 이것을 축으로 경영학회에도 간신히 발을 담고 있습니다. 마케팅 교수니까 당연히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물론 심리학을 기초로 하는 정통 마케팅이론에는 문외한입니다. 부끄럽게도 처음 학교로 부임해서는 코틀러라는 생판 처음 듣는 미국의 대가가 쓴 마케팅개론에서 생경한 단어와 이론들을 밤새 외워서 간신히 수업을 매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교수로 3

년을 지나면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강의시간에도 가급적 제 나름대로 소화한 관점을 전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정보(또는 신호)의 전달자가 목표한 수신자(target audience)에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통해 수신자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란 해당 제품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 차별성과 그 제품을 사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가 인코딩된 신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은 광고를 보고 난 후 고객의 반응이 얼마나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란 결국 목표 세분시장 고객의 반응구조를 잘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함이 자명합니다. 고객은 어떤 형태의 자극을 좋아하는지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마케팅조사론인데, 소매유통점의 스캐너데이터와 같이 실증데이터의 수집이 활발해지면서 이 분야는 저의 원래 전공인 계량경제학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좋은 커뮤니케이션, 즉 상대방이 원하는 자극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신하게 줄 수 없다면 뜻밖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마케팅이란 결국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고 바로 이것이 제가 마케팅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혹시 훌륭한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세상을 잘 관찰해보고 직접 경험이 없다면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 봄,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들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유, 매화, 벚꽃, 목련, 개나리, 진달래, 한국의 봄은 정말 무릉도원처럼 아름답지요? 꽃들은 제각기 모양과 색깔, 향이 다르고 피어나는 시기도 다른데 왜 그럴까요? 나무에게는 꽃을 피우는 것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고 목표고객은 다른 아닌 벌과 나비입니다. 꽃가루를 가장 잘 운반해줄 수 있는 벌과 나비를 대상으로 그들을 가장 잘 유혹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병(?)이

의심되는 해석이지만 꽃이 피어나는 시기도 가급적 경쟁을 피하려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춘삼월 좋은 계절 마다하고 동백은 왜 늦겨울에 빨간 꽃을 피울까요? 어쩌면 마케팅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생존을 위해 진화된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3월에 노란색으로도 피어보고 1월에 흰색으로도 피어보고 결국 2월에 핀 빨간 동백만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교수로서 즐기는 사치스런 취미 하나는 등산인데, 예전 학창시절 이승훈 선생님께 그 재미를 배웠습니다. 요즘 집에서 가까운 야산을 오르며 나무의 삶에 대해 종종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늦가을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처량하고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는 그 이름만으로 생명의 처연함을 느끼게 하죠. 좋았던 여름 짧게 보내고 그렇게 지고 마는 것일까? 겨울산은 공동묘지인 듯한데 이 봄에 다시 살아 오르는 새일을 보면 진정 죽은 것이 무엇이고 산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예전 버들골에서 경우들과 뜻도 모르고 불렀던 김민기의 노래 “친구”에서 “~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는 혹시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은 죽어도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고 더 긴 세월엔 나무가 죽어도 숲은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숲이 다 죽어도 아파트 숲에 밀려나가도 지구는 더 오래 살 것이고, 설령 지구가 없어도 우주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너무 이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주의 먼지가 일어나 없어짐과 같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월 6일 첫 강의 때 대학시절 은사인 이준구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세월 참 많이 흘렀네’ 하시며 저를 아래위로 살펴보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선생님께선 20년 전과 변한 게 거의 없으신데 저는 왜 이리 변하였을까요? 선생님, 송구합니다. 그때 앞은 지고 없어도 저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사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느라 언제나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8)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0)
- (미) UCLA 경제학 박사 (199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99.10~2005.2)
-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05.3~현재)

## 쿵푸 마스터가 되고 싶은 팬더의 슬픔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고 싶지 않으신 분은 읽지 마세요!



석사과정 박병진

얼마 전 석사 논문 발표를 마쳤다. 이것만 마치면 마냥 기쁘고 상쾌할 것만 같았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맺혔다. 서글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의 자유를 누리고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다. 영화관에서 만난 ‘쿵푸 팬더’의 주인공 ‘포’는 참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그는 뚱뚱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국수가게 아들이다. 그러면서도 쿵푸 파이터의 피규어를 모으고, 브루스리의 괴성을 흉내내며, 어슬픈 발차기를 하다 넘어지기 일췌인 열혈 쿵푸 매니아, 쿵푸 팬티다.

어느 날 ‘용의 전사’를 뽑는 쿵푸 대회에 구경을 갔다가 포에게 감당하기 힘든 행운이 찾아온다. 그는 얼떨결에 용의 전사로 뽑혀 어둠의 감옥에서 탈옥한 ‘타이링’으로부터 ‘평화의 계곡’을 지켜야 할 임무가 부여된다.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는 포는 어쩔 수 없이 용의 전사로서 쿵푸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새로운 삶은 그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했다. 쿵푸를 그렇게도 좋아하던 포에게 용의 전사로서 임무가 내려지는 순간, 포는 더 이상 쿵푸를 즐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의 마음처럼, 포에게는 더 없이 큰 서글픔이었을 것이다. 쿵푸는 이제 재미가 없어도 해야 하고, 눈치를 보면서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해야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알 수 없었던 마음에 맺힌 서글픔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곧 멀리 떠나 ‘경제학자’의 운명을 걸어갈 예정이 나에게 혹시 경제학도 이런 짐으로 변해버리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경제학에 작은 재미를 느끼고, 취미로서 일상으로서 경제학을 공부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부를 직업으로서 해야 하는 새로운 삶을 겪게 되면 나도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석사 논문 발표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비판을 앞으로 계속 겪어야 하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경제학자로 인정해줄까. 이제 가까이 다가온 나의 미래가 너무 두렵다.

포의 운명의 흐름은 우리가 고민하는 미래와 닮았다. 쿵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모습은 우리들의 현실을, 쿵푸 영웅으로서 성공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희망을 보여준다. 평소에 진로 고민을 털어놓는 후배들에게 쓸모 있는 조언 몇 마디 해주지 못하는 못난 선배지만, 이런 저런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영화의 명대사 몇 마디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You just need to believe."

용의 전사로서 포는 비전의 쿵푸 권법이 담겨있는 ‘용의 문서’를 보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기 만점 국수를 만드는 비밀 재료도 듣게 된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용의 문서는 백지였고, 국수의 비밀 재료는 없었다. 용의 전사라는 자신감과 특별한 국수라는 믿음이 중요할 뿐이다. 위의 명대사는 대사부 우그웨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시푸 사부에게 전한 말이다. 그는 쿵푸와 국수의 세계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준다.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의 해결책이 아닐까. 그러면서 경제해야 할 마음가짐을 따끔하게 말해준다. 아래의 문장도 대사부의 명대사이다.

"There is no accident."



포가 용의 전사가 된 것은 그저 우연이었다. 게다가 뚱뚱하고 움직이길 싫어하여 쿵푸 파이터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그를 용의

전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사부는 이러한 마음가짐의 위험함을 충고하고 싶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한다면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연은 없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믿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닐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수많은 우연의 연속으로 가능했다. 불운을 탓하기엔 우리는 너무 운이 좋았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자신감과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영화에서 대사부가 인용한 Eleanor Roosevelt의 금언으로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 변덕이 아닌 변화, 경제학자로서의 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되, 확신이 생기면 몰입하여 추진하기; 꿈을 갖고 배우며, 변화를 도모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 디오도어 루빈



김지혜 (학부 4학년)

주 위에는 일찍부터 '경제학자'를 꿈꾸고 '경제학'이란 학문을 공부하고자 경제학부로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배나 동기, 후배들을 보면 참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부럽기도 하다. 나의 경우는 열네 살 때부터 꿈꿨던 나의 미래의 모습은 천체 물리학자였다. 중학교 때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성능 좋지 않은 학교 천체 망원경으로 꺽꺽거리면서 겨우 내행성이나 소행성을 관측하면서 행복에 겨워했다. 나는 고교시절 이과 학생이었고, 자연스럽게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경제학부로 전과하여 졸업과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으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세상일은 참으로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같다.

대학교 1학년 때 강남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한국 경영인이 읽어야할 선정도서 20'이란 목록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쩌면 내가 너무 한 곳만을 바라보고 왔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 길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목록의 선정도서 20권을 다 읽었고 동시에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경제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는 생각에 이준구 교수님의 '시장과 정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이준구 교수

님께서 쓰신 책을 그 해 겨울에 다 읽어보았다. 경제학에 대한 흥미는 계속되어 허준석 선생님의 미시경제학 수업을 다음해 봄 학기에 듣게 되었고, 수업 중 추천해주신 경제관련 도서들(러셀 로버츠의 '보이지 않는 마음', 조나단 B. 화이트의 '애덤 스미스 구하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아이자와 아키라의 '승부에 강해지는 게임의 법칙', 최정규의 '이타적 인간의 출현', 사이카린 신세이의 '몬스터 마을의 경제학', 이토 모토시게의 '비즈니스 경제학' 등)을 또 모조리 다 읽으면서 경제학을 공부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해 여름에 동북아 청년 캠프에 참가해 '연해주 식량기지', 'TSR-TKR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 협력체 구축에 대한 러시아 경제학자들과 한국 정치가들의 열변을 듣게 되면서 경제통합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합성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내가 직접 저런 경제 정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까지 생겼다.

나는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경제학부로 전과하여 본격적으로 경제학과목을 수강하였다. 주식, 채권, 파생금융, 1,2를 비롯하여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현대마르크스경제학, 경제발전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산업연관론, 계량경제학 및 응용계량경제학특수연구, 거시경제학연구 등 대학원 수업까지 수강하였다. 굉장히 신기한 것은 경제학 수업은 수업 자체가 계속해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폐금융론을 수강하며 배운 Romer의 경제성장 모델로 '한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기 시작하여 노동경제학 수업을 통해서 배운 미시경제 모델을 가지고 분석해볼 수 있었고 지역정보대학원의 공간정책미시모형을 들으면서 GAMS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실증적으로 다루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경제학(환경대학원)과 산업연관론을 들으면서 IRIO로 승수효과를 계산해보기도 하였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지나친 교육투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병연 교수님의 수업시간에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을 복한 교육 시장까지 확대하고 계량경제학 수업시간에 배운 기초 지식과 응용계량경제학특수연구 수업시간에 배운 STATA를 이용한 패널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각이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들은 수업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특정 경제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모두가 하나로 합쳐져서 나의 졸업 논문에 쓰였다는 점이 신기하였다.

처음 소식지에 기고를 제의받았을 때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종합하여 소개하려고 했다. 그러다 이 글을 읽을 후배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경제학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점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는 후배들에게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내 이야기를 적어보기로 하였다. 나는 다른 공부를 하다 늦게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들보다 1~2년이 늦어졌다. 하지만 나는 다른 공부를 했던 시간이 낭비보다는 투자였다고 생각한다. 근거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지식을 활용할 곳이 없어도 내가 쌓은 지식들이 언젠가는 나를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점에 대한 구애보다는 흥미를 바탕으로 지식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 지식들이 축적되고 하나로 수렴되면서 연구의 바탕이 되는 것 같다. 어느 것이 우위에 있거나 또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학문이 좋다면 학업을 계속하면 되고, 현장이 좋다면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 IMPACT



은기환 (경제학부 3학년)

테니스를 사랑하는 경제학부생의 모임 IMPACT는 2000년 그 화려한 첫 걸음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대에 적응하면서 2008년 현재 관악 테니스계를 주름잡는 명문 테니스 동아리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준구 교수님과 류근관 선생님의 지도아래 현재 30명의 회원이 코트에서 땀을 흘리며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먼저 테니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할까 합니다. 테니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특히 상대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고 상대를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의 하나이죠. 아마 경기 중에 끊임없이 상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는 테니스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는 테니스는 일반 동호인들 사이의 경기라면 대개 셀프 저지로 심판을 대신하는데, 여간해서 오심이나 판정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선수의 스스로의 양심과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테니스의 특성 때문에 유난히 IMPACT 동아리원들 중에 매너남이 많고, 대부분의 동아리원들의 대인관계도 좋은 편인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테니스는 멘탈이 강조되는 스포츠인데요. 테니스의 독특한 점수계산법 때문에 큰 점수차의 리드도 순식간에 뒤집어 질 수도 있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하죠.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5게임을 먼저 이기고도 번번이 역전당하는 대표적인 '유리멘탈'입니다. 테니스는 집중력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 끊임없이 코스와 구질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하고 상대의 공이 오기 전에 빠르게 판단과 반응을 해야 해서 전략적 선택과 순발력까지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특히 기회가 왔을 때 종종 네트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네트플레이를 하면 게임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동시에 로브와 패싱을 당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짜 점심은 없다', 'Risk drives returns'와 같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테니스 경기 중에서는 수시로 증명되곤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동아리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IMPACT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교내 많은 동아리와는 달리 항상 열려있다는 점입니다. 열린 동아리라 함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열린 동아리'의 첫 번째 의미는 언제나 가입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테니스라는 운동이 처음에 배우기가 쉽지 않고, 기존 회원들과 어울려서 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동아리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테니스 운동 자체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저희 동아리는 창립 이래로 단 한번도 모집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고, 지금도 새로운 회원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동아리의 싸이월드 클럽에 들어오세요.



류근관 교수님의 원포인트레슨을 끝내고

'열린 동아리'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회원의 자격요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거의 유일한 자격 요건은 테니스를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동아리 신입부원 리크루팅 때마다 항상 '학번불문, 전공불문, 성별불문, 국적불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니스 동아리는 그 인적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IMPACT가 사회대 동아리인만큼 사회대 학생이 다수이지만 가까이에는 인문대를 비롯하여 농생대, 자연대, 공대, 생활과학대, 사범대, 간호대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끼리 잦은 교류를 하는 덕분에 경제학만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동아리만의

장점입니다. 특히 IMPACT에는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학생들도 있는데, 동아리 덕분에 테니스 하나로 국경마저 초월하여 외국인 친구도 사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기본활동은 매주 있는 정기모임입니다. 매주 2회 정도 교내 테니스코트에 모여서 테니스를 치고, 끝난 후에는 간단한 뒤풀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뭉뚱하니해도 동아리 활동의 핵심은 봄과 가을에 있는 동아리 자체 대회 IMPACT MASTERS와 여름과 겨울에 있는 전지훈련인 IMPACT TENNIS CAMP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5월에 IMPACT MASTERS를 하였는데, 특히 이준구 선생님과 류근관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대회를 빛내주셨고 모처럼 졸업하신 선배들까지 모여 성황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구파발에 있는 그린테니스코트로 1박2일간의 전지훈련을 다녀왔는데, 정말 하루 종일 테니스를 원 없이 칠 수 있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밤에는 IMPACT원들의 넘치는 끼를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2008 봄 IMPACT MASTERS

광역화 이후 점차 치열해지는 학점경쟁, 취업경쟁 때문에 동아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줄어들어 교내 많은 동아리들이 생을 마감하는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사회대와 경제학부를 대표하는 운동 동아리로서 IMPACT가 자리를 잡고 있어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 IMPACT는 경쟁에 치여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활의 선풍과 느낌표가 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IMPACT가 앞으로도 관악 명문 테니스 동아리로서 경제학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IMPACT여, 영원하라!

## 학생수상 및 장학금

### 상대동창회 졸업생 포상

김유진 학생(사회대 수석 졸업자)과 황지수 학생이 성적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상대동창회로부터 상을 수여 받았다.

### 장학금 수여

2008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 재학생 724명 중 168명, 대학원생 46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항상 장학금을 통해 20명의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으며 기타 교외 장학금을 통해 68명의 학부생이 수혜를 받았다.

### 2008학년도 1학기

#### 성적우수장학증서 수여식

2008년 4월 4일에 이영훈 학부장과 김병연 부학부장은 동원생활관에서 현정식 학생 이외 6명의 성적우수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 2008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우수상 수상



2008년 5월 22일~23일 양일간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공정거래위원회 반포청사에서 제7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가상으로 설정해 경연하는 대회로 이 대회에 참가한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교무 및 학생활동

### 2007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제 62회 학위수여식이 2008년 2월 26일에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전민규 외 9명의 박사를 배출하였으며, 석사 김하영 외 26명, 학사 김유진 외 162명(최우등 15명, 우등 54명)을 배출하였다.

### 2008년도 전공진입생 전공진입

2008년 3월, 150여명의 사회대 2학년 학생들이 경제학부로 전공진입 하였다. 광역화로 학생선발을 실시한 이후로 학생들은 사회대학 소속으로 입학하여 1년간을 전공없이 대학생 활동을 한 후, 2학년이 되면서 전공에 진입한다. 2008년도에도 경제학부로 전공진입하고자 하는 높은 열기와 경쟁 속에 150여명의 학생들이 경제학부로 전공진입하였다.

### 학부 전공진입생 대상 기초수학 강의 실시

2008년도 전공진입한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부 전공과정에 필요한 미적분학 분야의 수학 기초강의를 2008년 2월 25일(월) ~ 2월 29일(금)에 거쳐 실시하였다.

###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2008년도 경제학부 전공진입생과 2007년도 후기 및 2008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천 SK미래연수원에서 2008년 3월 14일(금) - 15일(토), 1박 2일의 일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는 경제학부 교수들도 함께 참석하였고 윤석경 동문(SK C&C 사장)의 경제학부 신입생들을 위한 특강 시간도 있었다. 이어서 야외 테라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고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2008년도 대학원 체육대회

경제학부의 대학원 자치회는 5월 3일 본교 체육관에서 대학원 체육대회를 주최하였다.

### 대학원 석사 전문가과정 폐지

2008년도 후기 모집부터 기존 연구자 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구분하여 선발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단일 석사과정으로 선발하였다.

### 2008년도 대학원 후기 신입생 선발

경제학부는 2008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 세 과목의 전공필답고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을 등을 바탕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 2008년도 여름계절학기 실시

2008년도 여름계절학기 수업이 6월 23일(월)~8월 9일(토)에 걸쳐서 실시된다. 경제학부는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수학, 지식과 기술경제학 세미나 등을 개설하였다.

### 조교신규임용

경제학부 교수지원실에서 근무하였던 오민희 조교가 퇴임하고 한다면 조교가 2008년 4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었다.

## 국제화 추진 현황

### 2008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박지형 Principles of Economics 1

(경제원론1)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론)

이승훈 The Korean Economy :

History and Recent Changes

표학길 Exercises in Economics

(경제학 연습)

김병연 Topics in Applied Econometrics

(응용계량경제학특수연구)

조성진 Topics in Microeconomics

(미시경제학특수연구)

### 대학원 신입생 해외교육 실시(홍콩방문)

경제학부는 김병연 부학부장의 지도 하에 2007년도 후기 및 2008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008. 7. 24(목) - 7. 27(일) 3박 4일에 걸쳐 해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교육을 통해 대학원 신입생들은 홍콩 소재 홍콩과학기술대와 중국 심천에 있는 삼성전자 등을 방문했다.

### 외국인 우수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선발

경제학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페루자(Feruz Ravshanovna Abidova) 학생을 2008년 후기 외국인 우수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GSFS) 선발자로 선발하였다. GSFS에 선발된 학생은 학교로부터 장학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학부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 영어학위논문작성 지원

본교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석박사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 석사 100만원, 박사 200만원을 교정료 등의 비용으로 지원한다. 경제학부에서는 석사과정생 5명, 박사과정생 2명이 지원대상으로 선발되어 영어논문 작성지원을 받는다.



### 우물 밖 인터넷

이천표, 동아시아 2007.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우물 안 개구리의 시야를 벗어나 보다 경제전체적인 맥락에서 인터넷 산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터넷을 연구하여 인터넷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인터넷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를 전망하였다.



###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양동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12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세계화에 논의를 한정시켜 경제적 차원의 세계화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세계화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경제사적 조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세계화라는 개념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해야만 세계화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정운찬, 조흥식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12

사회과학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깊어가는 사회갈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강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 외환위기 10년, 한국금융의 변화와 전망

김인준,이창웅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금융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금융산업과 거시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쟁력 강화, 위험관리와 회계투명성 등 한국 금융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 국제경제론(제4판)

김신행, 김태기, 법문사 2008.1

국제경제론의 제4판으로 지난 3판의 내용에 국제경제학의 기존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은 물론 최근 이론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특히 현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지적재산권 문제, 금융시장과 외환위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 정보통신 경제학

이천표, 박영사 2008.3

정보통신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통해 정보통신 주요 이슈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정보보안 및 지적재산권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활용 예를 들어 이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거시경제학(제4판)

이지순, 법문사 2008.5

기존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수식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나 설명도 삭제하여 거시경제학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재이다. 특히, 이번 제4판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성장이론 파트를 크게 보강하였다.



### 미시경제학(제5판)

이준구, 법문사 2008.7

기존 미시경제학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한 장을 줄이고 새로운 한 장을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된 장은 최근 급격히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는 행태경제이론(Behavioral Economics)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 기존의 이론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이론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5판에서도 수식은 과감하게 생략되었지만 논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으며 경제적 직관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강조되어 서술되었다.



### 해방이후 한국기업의 진화(I)

이근 교수를 대표저자로 하여 이창웅, 류근관, 안동현, 이상승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해방이후 한국기업의 진화(I)'이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도서는 해방이후 한국의 상장기업 자료DB를 구축하고 기초분석을 하는 책으로서, 2007년에 나온 제1권은 75년 이후의 자료를 담고 있어 올해 나오는 제2권은 56년 이후의 자료를 담고 있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년 11월

##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 안내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16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5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

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모여 6개월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수료 후 동창회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자신의 역량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 ASP과정의 특징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2. 동창회 조직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관심있는 분들은 경제연구소 ASP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16기 모집안내

- ① 모집인원 약 40 명
-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체의 사장급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③ 지원절차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우)151-746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 ④ 문의사항 TEL : (02)880-5432 Fax : (02)875-9867 e-mail : hee0307@snu.ac.kr Home Page : <http://econ.snu.ac.kr/~ecores>

### 15기 수료자 명단

강대승 KB국민은행 지점장

고종석 KTF 전무

김계호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부사장

김대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김두훈 유니시스(주) 대표이사 사장

김복은 경기도청 고용정책과장

김성우 신한은행 부행장

김신일 (주)서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청구,  
(주)한성 부회장

김익진 삼성투자신탁운용 상무

김종록 한국전력공사 부처장

김종원 우리은행 지점장

나홍문 산은캐피탈(주) 본부장 상무

노원식 농협중앙회 부행장(상무)

노일균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상무보

박덕동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총장

박동수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박태원 (주)송경가설산업,  
(주)피엔엠코드 대표이사

신동진 예금보험공사 이사

신종갑 한국토지공사 전략경영단장

심승진 한국투자증권 상무이사

안동명 한국산업은행 부장

염조일 (주)유아이이앤씨 대표이사/사장

우중본 한국수력원자력 재무실장

원정호 삼성카드 상무

윤영일 감사원 국장

이재철 (주)동양건설산업 상무이사

이정인 딜로이트컨설팅(유) 전무이사

정세용 내일신문 논설주간

채수철 두산중공업 상무

최남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 훈 기업은행 부장

표현명 KT 전무/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

##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mail: kang97@snu.ac.kr

**정정공고** : 지난번 발행된 제18호 소식지가 19호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정정합니다.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지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mail : brhams@snu.ac.kr ● 전화 : 02-880-6359, 6398 ●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